

2008. 4. 21 제189호

세계도시동향

세계도시

2008. 4. 21 제189호

목 차

[벤치마킹 사례]

미국 오클랜드市 ‘탈석유 계획’(Oil Independent Oakland Action Plan)

문화·디자인

1. 도시를 디자인하는 ‘시민 예술 프로그램’ (로스앤젤레스)
2. 도시 곳곳에 예술적인 LED 조명 설치 (브라질 상파울루市)
3. 세계 문화도시 위상 지켜 줄 문화사업기금 조성 (런던)

산업·경제

4. 지역산업 살리기에 1970억여 원 투자 (도쿄)

건강·복지

5. 노숙자 창업 돕는 ‘공동사회창업학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
6. 복지 및 보건·의료 사업에 올해 예산 대폭 늘려 (도쿄)
7. 정보통신기술 이용해 학교 교육환경 첨단화 가속 (도쿄)
8. 먹거리 안전 위해 엄격한 잣대 제시 (북경)
9. TV 리모컨으로 은행업무 보세요 (북경)

목 차

방재·안전

10. 재해에 강한 마을 만들기 (도쿄)

도시환경

11. 환경 보호하려면 비행기 대신 기차로 출장하세요 (런던)
12. 쾌적한 도시 만들기에 주력 (도쿄)

도시교통

13. 자동차 주차료는 자동차 외 교통부문 개선에만 쓰기로 (워싱턴 D.C.)
14. 자전거 임대 전용카드 선보여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
15. 시장 선거 공약에 ‘자전거 우선도로 조성’ (런던)
16. 화물차에 ‘안전 거울’ 설치하세요 (런던)
17. 외곽 순환도로에 대한 도시 차원의 연구성과 (파리)
18. 도로 정비로 도심 정체 해소 (도쿄)

도시계획·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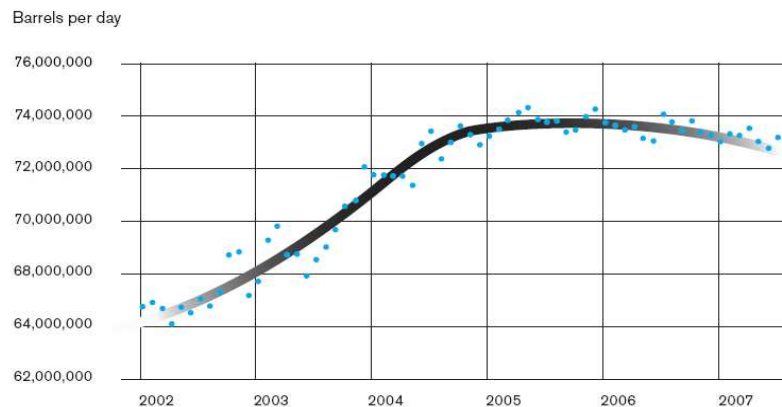
19. 도시 재생 성공하려면 자치구의 강력한 리더십 필요 (영국)

[벤치마킹 사례]

미국 오�클랜드市 ‘탈석유 계획’(Oil Independent Oakland Action Plan)

<주요 내용>

- 최근 세계적으로 석유 생산량이 정점에 이르렀고 앞으로는 석유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미국 오�클랜드市는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개념 아래 세계 일류도시가 되고자, 석유 사용량 감소에 초점을 맞춰 2008년 2월 ‘탈석유 계획’(Oil Independent Oakland Action Plan)을 수립함.
 - 오�클랜드市는 도시 전체의 석유 소비량을 연간 3%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움. 市의 전체 석유 소비량 가운데 수송 부문이 97%를 차지하고 있어, 특히 교통 부문에서 여러 시행계획을 수립했음.



Source: www.oildrum.com

세계 석유 생산량의 감소

- 오�클랜드 항만국(Port of Oakland), 지역교통국(Regional Transportation Agencies) 등 여러 기관과 시민이 협력해 석유 절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
 - 계획수립 기간인 2007년 4~12월 교통, 에너지, 대기질, 토지 등 공공정책 분야 전문가들과 13번의 공식 회의를 통해 계획을 수립함.

- 토지이용 개선 정책을 수립해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마을(Urban Village)로 새롭게 디자인하고, 이를 통해 교통에 따른 석유 소비량을 줄임. 탈석유 자급자족형 도시마을 조성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음.
 - 1단계: 도시마을 기반을 창조하기 위해 일반계획(General Plan)과 지역지구 조례(Zoning Ordinance)의 토지 이용 및 교통계획 요소를 개선함.
 - 2단계: 건축 용적률을 고밀도로, 토지 이용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설계기준을 개발함.
 - 3단계: 도시마을 사업을 위한 기반시설에 재정을 지원함.
 - 4단계: 녹지 보존 및 오픈 스페이스 확보를 위해 개발권리 조례를 개정함.
- 교통수단별 석유와의 관계를 고려해 석유 소비량 감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통정책을 수립함.
 - 보행·자전거·대중교통 종합계획 수립, 지역교통 관리기구와 이웃 도시의 대중교통 협력체계 구축, 카 셰어링(Car Sharing) 제도 이용 증진, 석유 감소 위주의 교통정책 개발 등을 시행함.



교통수단별 석유 사용량 정도

- 이용자 통행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제안함.
 - 채택근무를 통한 주당 업무통행 1회 축소(석유 소비량 약 4% 감소 효과), 걷기와 자전거 이용을 통한 주당 비업무통행 1회 축소(석유 소비량 약 4% 감소 효과), 버스와 카풀 이용을 통한 한사람의 업무통행 대체(석유 소비량 약 13% 감소 효과) 등을 제안함.

97%	오클랜드 석유 소비량 중 교통 분야 점유율
47%	오클랜드 온실가스 배출량 중 교통 분야 점유율
40%	오클랜드 에너지 사용량 중 교통 분야 점유율
58.4 miles/day	가정당 하루 운행거리
6.9 trip/day	가정당 하루 통행 횟수
8.4 miles/trip	대표(Typical) 통행의 하루 운행거리
30%	전체 통행 중 업무 통행의 비중
17.4 miles/day	업무 통행의 가정당 하루 운행거리
20.2 miles per gallon	평균 차량 연비

오클랜드市の 교통과 석유통계

- 오클랜드市는 탈석유 계획을 통해 다음을 중점적으로 추진함.
 - 석유 에너지 팀(Oil Energy Task Force Team): 석유와 에너지를 전담하는 팀으로, 향후 20년간 연 3%의 석유 소비 감축을 목표로 일하고 있음.
 - 홍보 교육 캠페인 강화: 거주자, 자영업자, 고용자 등을 위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공공 인식, 교육, 활동 캠페인에 착수함.
 - 석유 비상계획서(Prepare Contingency Plans): 새로운 개발사업, 자치도시, 지역 기관, 대형 사업체의 석유 비상계획서를 작성함.
 - 세금제도 변경: 탄소세를 교통연료에 부과하고 이를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정책에 사용함. 탄소세 부과는 높은 연료가격으로 이어져 차량운행 감소와 그린 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을 유도할 것임.

<해설 및 평가>

- 市가 주도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고유가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음.
- 탈석유 계획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이념에 부합함.
 - 석유 소비 절감, 수소전지사업 등 ‘그린 컬러 직업군’(Green Collar Job)으로 불리는 일자리 창출, 탄소세 수입 증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등 환경적·경제적 기대효과도 클 것임.

<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 고유가 시대를 맞이한 서울시는 현재, 도시 차원의 종합 대책이 미흡하고 각종 사업과 계획 등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정책 간 상충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벤치마킹 시행방안>

○ 오클랜드市와 같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도시 차원의 탈석유 계획을 서울시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석유 비상계획팀을 구성해 석유 비상계획안 작성, 법규 개선, 홍보, 대체에너지 개발 전략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함.
- 자급자족형 도시 및 탈석유 도시를 목표로 설정함.
- 에코 드라이빙(Eco-driving)을 위한 운전자 교육·훈련, 홍보를 시행함.
- 건축물 형태별 동·구 단위의 석유 소비량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가 필요함.

- 탈석유 도시를 위해 여러 분야별 정책 대안을 작성해 변화해 가야 함.
- 건축 설계 분야: 외부에너지 공급 제로 건물 건축
- 도시 설계 분야: 자급자족형 지역사회(Self-sufficient Community)
- 도시 교통 분야: 탈석유 녹색교통(Fuel Zero Green Transport)
- 도시 경제 분야: 유가 예측, 시민경제 영향 분석
- 도시 사회 분야: 고유가 시대 사회 전망
- 도시 환경 분야: 탄소배출권거래제, 재생에너지 수급 등

<벤치마킹 기대효과>

- 지속가능성 대두, 신고유가 시대 등의 흐름에 맞추어 도시 차원의 탈석유 계획 수립을 통해 세계 선두 도시로 나아갈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석유에너지 소비량 감소와,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 탈석유 사회로 진입해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임.

/김경철 도시기반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gckim@sdi.re.kr)

1. 도시를 디자인하는 ‘시민 예술 프로그램’ (로스앤젤레스)

○ 최근 로스앤젤레스市에 새로 지어진 행정기관 건물 앞의 타일벽화가 시민의 눈길을 끌고 있음. 이는 2004년 12월에 시작된 ‘시민 예술 프로그램’(Civic Art Program)의 첫 완성작으로, 도시 미관을 살리고 주변에 활기를 더해주고 있음.

- 이 프로그램은 새로 짓는 공공건물의 설계·공사비용의 1%를 예술작품 설치나 공간 조성에 쓰도록 하는 것임.

- 로스앤젤레스市는 건축가와 개발업자, 주민대표, 공무원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조정위원회를 통해 새로 짓는 공공건물에 어떤 형태의 예술작품이 어울릴지 토론하고 결정함.

·프로젝트 조정위원회는 행정기관과 같이 규모가 큰 건물 외에 소방서, 도서관, 복지관 같은 소규모 공공건물에도 이미 40여 개의 프로젝트를 시행하도록 했음.

·벽화나 조각 등의 예술작품에만 국한하지 않고 창의적인 글이나 그래픽 디자인, 소규모 극장 등 예술과 관련된 여러 형태도 고려하고 있음.

- 1973년부터 도시 조경 프로그램을 시작한 시애틀市의 경우, 총 400개의 상설작품과 2800개의 설치작품들로 도시 경관을 조성했음.

(www.latimes.com/news/local/la-me-civicart12mar12,1,5095795.story)

2. 도시 곳곳에 예술적인 LED 조명 설치 (브라질 상파울루市)

○ 브라질 상파울루市가 발광다이오드(LED: Light Emitting Diode) 조명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전통적인 형식미를 벗어나 자유로운 예술방식인 아르누보(Art Nouveau) 스타일의 LED 조명을 市 주요 명소인 산타 이피제니아 대교에 설치함.

- 1913년 건설된 산타 이피제니아 대교는 상파울루市的 역사를 보여주는 명소 중 하나임.
 - 조명 설치공사는 2008년 6월 말까지 진행되며, 이 공사에 약 40만 헤알 (약 2억 3800만 원)이 투자됨.
 - 市는 산타 이피제니아 대교 조명 설치가 끝나면, 2단계로 市 중심가 건물 에도 LED 조명을 설치하는 등 市 곳곳으로 확대할 계획임.
 - 市는 LED 조명을 설치해 절전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효과를 거둬 친환경 도시 조성 및 에너지 절감을 도모할 계획임.
- (www.prefeitura.sp.gov.br/portal/a_cidade/noticias/index.php?p=22266)

3. 세계 문화도시 위상 지켜 줄 문화사업기금 조성 (런던)

- 런던市는 런던개발청이 세계 5대 도시인 런던, 뉴욕, 파리, 도쿄, 상하이의 문화 환경을 계량 분석을 통해 비교한 연구 보고서인 ‘런던의 문화 평가’(London: A Cultural Audit)를 최근 발간함.
- 박물관과 미술관, 극장, 공연장 수 등에서 런던市가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 해, 가장 앞선 문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음.
- 런던市는 세계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문화사업 지원 기금 140만 파운드(약 27억 3000만 원)를 새로 조성하기로 결정함.
- 문화기금은 잉글랜드 예술진흥위원회와 런던개발청이 파트너십을 이뤄 주 관하며, 우선 18개월 동안 1차 기금을 운용할 예정임.
- 현재 런던 시민 55만 4000여 명이 창조문화산업에 종사하고 있음.
- 창조문화산업은 관광산업과 연계해 2005년 한해에만 200억 파운드(약 39 조 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한 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6173)

(www.london.gov.uk/mayor/culture/key-documents.jsp)

산업 · 경제

4. 지역산업 살리기에 1970억여 원 투자 (도쿄)

○ 도쿄都는 지역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08년에 203억 엔(약 197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함.

- 都는 구·시·정·촌과 제휴해 도내 기업이나 대학의 실적 등을 활용한 도시형 산업의 창조 및 집적을 도모하고, 지역자원을 살린 新사업을 지원하는 등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 ‘지역 중소기업 응원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지방의 중소기업이 도쿄都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

·중소기업을 위해 융자해 주고, 중소기업 기술을 지원하며, 산업기술 대학원 운영 등 산학공(産學公) 제휴를 통해 인재를 육성함.

- 상가 활성화 지원을 실시하며,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노동력 인구 감소 따른 적절한 취업도 지원함.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도시 마케팅 전개 및 도쿄의 역사와 문화를 살린 관광 진흥 사업, 농림 수산업 진흥 사업 등도 지원할 계획임.

(www.koho.metro.tokyo.jp/koho/2008/03/yosanan8.htm)

한줄 뉴스

- 영국 브래드포드市, 녹색학생마을 조성 포함한 연구지구개발 계획
- 뉴욕교통공사, 분실물 찾기 서비스 등 지하철 이용 관련 내용을 지하철 이용자에게 이메일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계획
- 샌프란시스코市, 시청 모든 부서에서 100% 재활용 용지만 사용하도록 지시

건강 · 복지

5. 노숙자 창업 돕는 ‘공동사회창업학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는 ‘공동사회창업학교’ 과정을 이수할 신청자를 모집해, 교육을 통해 노숙자와 시립 보호소 이용자의 창업을 돕고 있음.
 - 市는 교육생 중 일부를 선발해 시정부 사회 기금인 ‘리우 기금’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줌.
 - 수강생은 창업에 필요한 이론 및 실전 교육을 받게 됨.
 - 인권, 에티켓, 지역경제 개발, 도시 생활, 마케팅·경영 등의 수업을 받게 됨. 사업 기획, 홍보, 운영, 금융 등에 대한 교육도 받으며 이를 통해 창업 성공의 가능성을 높임.
 - 교육기간은 3개월이고, 수강생은 모두 100헤알(약 6만 원)의 교통 보조비를 지급받음.
 - 市는 이를 통해 사회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창출, 소규모 창업자의 사업 강화를 기대하고 있음.

(odia.terra.com.br/economia/htm/ex_morador_de_rua_pode_se_tornar_um_pequeno_empresario_157804.asp)

6. 복지 및 보건·의료 사업에 올해 예산 대폭 늘려 (도쿄)

- 도쿄都는 2008년도 복지 및 보건·의료 사업을 크게 육아 및 아동,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당면한 의료 과제 대책으로 나눠 예산을 대폭 늘려 지원함.
 - 주산기(周産期) 의료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한 모자·소아 의료체제 정비, 육아와 일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병설형 탁아소 사업,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 학대 방지대책인 일시 보호소 정비 등에 56억 엔(약 54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됨.

- 치매 고령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그룹 홈을 정비하는 등의 치매 지역 의료 추진 사업, 2008년 4월부터 시작하는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금 설치사업에 750억 엔(약 7300억 원)이 편성됨.
- 발달 장애인 지원, 보호자가 사망한 장애인에 대한 연금 제도 운영 등 장애인 생활 지원, 장애인이 자립해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 취업 지원에 총 122억 엔(약 1190억 원)을 사용할 예정임.
- 생활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진 저소득층을 위한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생활 자금을 대출하거나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등 생활과 취업의 양면을 지원하는 사업이 97억 엔(약 9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08년 새롭게 시작됨.
- 감염증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한 감염증 대책, 암 조기 발견 등 종합적인 암 대책 사업, 기피되고 있는 의료분야의 의료 인재 확보를 위한 의료환경 정비 및 지원 등 직면한 의료과제 대책에 상향된 예산이 편성됨.

(www.koho.metro.tokyo.jp/koho/2008/03/yosanan6.htm)

7. 정보통신기술 이용해 학교 교육환경 첨단화 가속 (도쿄)

○ 도쿄都是 11억 엔(약 107억 원) 예산을 들여 도립학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Communion Technology) 계획을 수립함.

- 학교 현장에서 정보통신기술이 잘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모든 도립학교에 랜(LAN) 선을 정비하고 교직원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지도력 향상을 도모하는 등 도립학교의 정보통신기술 환경을 최고 수준으로 정비할 계획임.
- 都是 수업 개선 등을 통한 학력 향상, 다양한 학습방법과 진로 상담을 제공하는 등 도립 고등학교 개혁 사업, 장애를 가진 학생 개개인을 위한 특별 지원 교육 등도 추진함.

- 전혀 외출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청소년의 자립이나 비행 청소년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체제 정비 사업에 2억 엔(약 1억 9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음.

(www.koho.metro.tokyo.jp/koho/2008/03/yosanan6.htm)

8. 먹거리 안전 위해 엄격한 잣대 제시 (북경)

- 북경시는 대형 마트에서 판매되는 식품 중 유통기한이 곧 돌아오는 식품에 한해 전자표시를 하기로 함. 2008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북경시 식품안전조례’에 따라 기업은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고 판매해야 함.

- 대형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다가오는 상품에 하나를 사면 하나를 끼워 파는 판매방식에 대해 별도 표시를 할 예정임.

- 市 공상국은 법을 엄수하지 않는 생산자 및 판매자에 대해 가중처벌을 할 계획임. 마트의 영업 규모에 따라 벌금액을 정하고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상국이 법원에 소송을 하게 됨.

- 북경시는 중국 국민 대다수가 관심을 갖는 농산품 농약 잔여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약 잔여물 정도가 높은 상품은 판매를 금지함.

- 市 공상국은 매해 시장에서 10만 개의 상품 중 특히 농산품의 농약 잔여물 샘플 검사를 실시해 관리할 예정임.

- 이미 농약 배송체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약 잔여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당국의 관리감독 아래 기업 스스로 검사하는 자율검증시스템을 도입했음.

(beijing.qianlong.com/3825/2008/03/12/2861@4344402.htm)

9. TV 리모컨으로 은행업무 보세요 (북경)

- 북경市 중국은행연합회가 최근 거화 유선TV와 협력해 TV 리모컨으로 전기·전화·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낼 수 있는 기술에 성공함.
- 각 가정의 디지털 TV에 카드를 설치하고 TV 리모컨에 은행카드 정보를 입력함. 신용카드를 리모컨 뒤에 갖다 대면, TV 화면에 지불사항이 나타나고 이를 확인한 후 리모컨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됨.
- ATM기에 익숙하지 못한 노년층이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
- 2007년 북경 금융전시회에서 은행연합회가 이미 ‘지아푸통’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전시한 적이 있음.

(www.bjd.com.cn/bjxw/bjshengh/xfjs/200801/t20080130_420497.htm)

방재 · 안전

10. 재해에 강한 마을 만들기 (도쿄)

- 도쿄都는 도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2008년 예산으로 446억 엔(약 4300억 원)을 편성함. 이는 2007년도 예산에 비해 83억 엔(약 806억 원) 상향된 것임.
- 지역 주민의 방범활동이나 ‘방과 후 교실’ 등 어린이 안전 대책,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테러나 조직범죄 대책을 강화하는 등 치안 대책에 20억 엔(약 194억 원)이 편성됨.
- 병의 증상에 따라 의료기관 안내나 응급 처치를 조언하는 구급 상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구급차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는 등 구명·구급 활동에 3억 엔(약 29억 원)이 편성됨.

- 지진재해 시 초동 태세 및 재해 대응력을 강화한 시스템 정비, 도로 정비 및 무전주화 마을(전봇대 없는 마을) 조성, 긴급 수송도로 인근 건물의 내진화, 하천 정비 및 수해 발생 위험 지역에 대한 긴급 침수피해 대책이나 옹벽 정비 등 도시재해를 대비해 423억 엔(약 4100억 원)이 편성됨.



대규모 테러 재해 대처 훈련 모습

(www.koho.metro.tokyo.jp/koho/2008/03/yosanan3.htm)

>>> 전문가 검토의견

- 일본은 지진, 풍수해, 화재 등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안심사회 구현을 위해 방재부문에 높은 정책 우선순위가 부여돼 있을 만큼 세계적인 방재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서울시가 도쿄都 수준의 방재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벤치마킹 차원에서 참고할 필요는 있다고 봄.
 - 예산 및 인력규모 측면에서 서울시는 아직 뉴욕, 동경, 런던, 파리 등 세계적인 도시에 비교해 낮은 수준임. 인적 재난의 경우에는 대응 및 복구부문에 비해 예방 및 대비부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임.
- 재난 예방을 위한 방재시설의 첨단화, 인력의 전문화, 상황탐지 및 감시체계의 고도화, 신속한 정보전달 체계 구축, 방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재해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 정비, 특정 시설 및 핵심 시설을 중심으로 한 대형 재난 방지 부문에 좀 더 높은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함.

/신상영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syshin@sdi.re.kr)

도시 환경

11. 환경 보호하려면 비행기 대신 기차로 출장하세요 (런던)

- 런던시는 공무원이 최대 6시간 이내 인접지역으로 출장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비행기 이용을 자제하고 기차를 우선 이용하도록 방침을 정함.
 - 기차 우선 이용 지역은 영국 전역뿐 아니라 프랑스, 벨기에 등 고속 기차로 연결되는 인접 유럽국가도 포함됨.
 - 런던시는 2007년부터 시 공무원에게 인접 국가 출장 시 가능한 기차를 이용하도록 권장해왔음. 이번 정책 발표로 사실상 런던시 공무원의 단기출장 시 비행기 이용이 공식적으로 금지된 것임.
 - 런던시는 일반 회사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고려한 출장방침을 적용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비행기는 같은 거리를 기차로 여행할 때보다 2~3배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공무원의 기차 우선 출장으로 런던 공항 이용도를 15% 저감하는 효과도 있어 공항 혼잡으로 인한 시민 및 관광객 불편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environmentdesk@london.gov.uk)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6215)

12. 쾌적한 도시 만들기에 주력 (도쿄)

- 도쿄도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2008년 예산을 626억 엔(약 6100억 원)으로 편성함. 이는 2007년도 예산보다 두 배 이상 상향한 것임.

- 쾌적한 도시환경 실현을 위해 먼저 지구온난화 대책에 203억 엔(약 197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음.
 - 2020년까지 도쿄都의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을 2000년 기준으로 25% 줄인다는 내용의 ‘카본 마이너스 도쿄 10년 프로젝트’를 추진함.
 - 가로등을 에너지 절약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 공공 청사를 환경 학습의 거점으로 확충·정비하는 사업이 추진될 계획임.
- ‘초록의 도쿄 10년 프로젝트’에 389억 엔(약 3800억 원)을 투자해, 교정의 잔디화, 가로수 확충 등 초록이 넘치는 도쿄 재생을 목표로 본격적인 대책을 실시할 것임.
- 대기 오염 및 폐기물 대책에 34억 엔(약 3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대기 중 미세 입자물질에 대한 대책과 IC 태그를 이용한 감염성 폐기물의 추적 시스템을 도입 등을 통한 산업 폐기물의 불법 투기 대책을 강화할 것임.

(www.koho.metro.tokyo.jp/koho/2008/03/yosanan4.htm)

한줄 뉴스

<브라질 쿠리치마市>

- 2008년 5월 24~27일, 미용 분야 비즈니스를 위한 제1회 ‘뷰티 미팅’(Beauty Meeting) 개최
- 2008년 7월 28일~8월 1일, 지역 브랜드 소개 및 패션쇼를 위한 제2회 ‘비즈니스 컬렉션’(Business Collection) 개최

13. 자동차 주차료는 자동차 외 교통부문 개선에만 쓰기로 (워싱턴 D.C.)

- 워싱턴 D.C.는, 최근 새로 건설된 농구 경기장에 경기일마다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개의 ‘경기장 주차 시범지역’(Performance Parking Pilot Project Zone)을 만들고, ‘녹색 주차장 개선 프로그램’(Green Parking Reform)을 시행함.
 -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시범구역 안의 주차미터기에서 나온 주차료는 전적으로 시범지역의 자동차 외 교통수단 개선에 사용한다는 것임.
 - 자전거 도로의 편의성을 높이고 보행로를 넓히며, 도로소음 정보나 버스·기차 도착시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 등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의 편의를 위한 용도로만 수입을 사용함.
 - 주민이 주차에 지출한 돈이 다시 그 지역의 자전거나 보행자 편의시설 확충에 쓰인다는 점에 많은 시민의 호응을 얻고 있음.

(www.planetizen.com/node/30135)

14. 자전거 임대 전용카드 선보여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는 자전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자전거 임대 시스템 ‘Smart Bike’를 도입함.
 - 공공장소 내 자전거 주차장에서 임대 전용카드로 자전거를 이용하면 됨.
 - 자전거는 평소에 잠금 장치가 돼 있으며, 전용카드를 삽입하면 잠금 장치가 해제돼 이용할 수 있음.
 - 전용카드에는 사용자 신원 및 이용 가능한 시간 등이 입력돼 있음.

·이용자는 자전거 이용 후, 처음 임대했던 자전거 주차장이 아니어도 다른 자전거 주차장에 반납할 수 있음.

- 리우데자네이루市는 자전거 임대 시스템을 통해 자전거 사용이 장려되면 시민의 건강 및 대기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diariodorio.com/alugando-bicicleta-no-rio-de-janeiro-smart-bike)

(www.rio.rj.gov.br/dorio)

15. 시장 선거 공약에 ‘자전거 우선도로 조성’ (런던)

○ 런던시장은 3선에 당선되면, 일상생활에서 공공 교통시설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게 해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를 함께 이루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함.

- 그 중 하나가 자전거 이용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자전거 우선 도로임.
·이는 6000만 파운드(약 1200억 원)를 투자하는 보행과 사이클링 프로그램의 하나로, 자전거 우선 도로에서는 자동차가 자전거에게 길의 우선 순위를 양보해야 함.

·런던 도심에 300m 간격으로 조성되는 자전거 임대안 계획도 발표함.

- 이산화탄소 배출을 40%까지 줄일 수 있는 500대의 하이브리드 버스를 2010년까지 도입하겠다는 내용도 선거공약에 포함함.

(www.regen.net/bulletins/Regen-Daily-Bulletin/News/789603/Livingstone-manifesto-pledges-cycle-priority-streets)

16. 화물차에 ‘안전 거울’ 설치하세요 (런던)

- 런던 교통공사가 추진하는 ‘화물차량 식별 프로그램’(FORS: Freight Operator Recognition Scheme)과 런던시의 ‘함께 쓰는 도로안전 캠페인’(Share The Road Campaign)의 일환으로 화물차량에 안전거울을 무료로 지급함.
 - 자전거 운전자 사망사고 원인 중 절반을 차지하는 화물차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 운전자가 도로 운행 시 자전거 운전자를 좀 더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거울(프레넬 복경)을 지급함.
 - 안전거울은 화물차량 운전 조수석 창문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화물차량 옆에 붙어 운행하는 자전거를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주는 역할을 함.
 - 런던 교통공사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큰 위협이 되는 대형 화물차용 안전거울 1만여 대와 화물차량이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할 수 있도록 경고하는 홍보대를 설치하는 데 2008년 한 해 동안 4960만 파운드(약 971억 원) 예산을 투입하기로 함.

(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7695.aspx)

17. 외곽 순환도로에 대한 도시 차원의 연구성과 (파리)

- 파리와 일 드 프랑스 수도권 지역이 파리 외곽 순환도로(Le Boulevard Périphérique)에 대한 도시 차원의 연구 성과를 발표함.
 - 이번 연구는 Trévelo & Viger-Kohler(TVK) 건축가와 도시 전문가 연구소, Berim·RFR 구조 기술 연구소, 조경 전문 사무소가 연합해 내놓은 연구 성과로, 미래 관측적인 파리 외곽 순환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을 내놓음.

- 1973년에 완공된 파리 외곽 순환도로는 약 35km에 이르며, 파리市와 이웃 지역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짓고 있음.
 - 현재 이 도로는 소음과 공해를 일으키기도 하고 차단하기도 해서, 순환도로의 개선사항은 복잡한 도시 문제와 얽혀 있음.
- 이번 연구는 전반적으로 외곽 순환도로의 진화와 발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특히 장기적으로 더 나은 새로운 프로젝트 실천을 위한 제반 조건을 준비하는 여러가지 방안을 제안했음.
 - 이러한 접근은 이 도로가 관통하는 각 관할 구역의 다양한 변화를 고려한 것으로, 외곽 순환도로에 미래 지향적인 도시를 위한 도시기반 구조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는 데 목적을 둠.
- (www.paris.fr/portail/accueil/Portal.lut?page_id=6135&document_type_id=4&document_id=49287&portlet_id=14061)

18. 도로 정비로 도심 정체 해소 (도쿄)

- 도쿄都는 도심으로 유입하는 교통을 분산하기 위한 간선도로 정비 등 도로 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 중임.
- 철도 건널목으로 인한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구간을 입체 교차로로 만들고, 철도로 인해 분단된 마을을 하나로 통합하는 사업을 추진함.
- 만성적 정체 구역에 대한 도로시설 개선이나 주차장의 유효 활용을 위해 차세대 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이 추진될 예정임.

(www.koho.metro.tokyo.jp/koho/2008/03/yosanan5.htm)

도시계획·주택

19. 도시 재생 성공하려면 자치구의 강력한 리더십 필요 (영국)

- 영국의 싱크탱크 ‘폴리시 익스체인지’(Policy Exchange)는 도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치구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발표함.
 - 밴쿠버, 암스테르담, 루르(Ruhr), 로즈(Lodz), 바르샤바, 홍콩 등 6개 국제도시의 도시재생사업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함.
 - 이들 도시는 영국의 도시처럼 투자 유치, 빈곤 타파, 인력시장 확장과 같은 공통적 현안을 겪고 있는 도시임.
 - 특히 강한 리더십과 유동적인 지역중심의 정책을 실현한 좋은 사례임.
 - 혁신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한 정책입안과 함께 변화에 대한 도전이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에 큰 역할을 했다고 싱크탱크 관계자가 말함.

(www.regen.net/bulletins/Regen-Daily-Bulletin/News/793632/Report-successful-cities-need-strong-leadership)

한줄 뉴스

<도쿄都>

- 세타가야區, 고령자의 사회활동 도모와 건강 증진을 위해 ‘개호 지원 자원봉사 포인트 제도’ 실시
- 가즈시카區, 공원, 어린이 광장, 보육원 등을 조사해 위치와 활용방안을 기재한 ‘자녀양육 맵’ 제작